



“다양한 약 비교 가능” vs “동네약국 위기”

‘창고형 약국’ 개점… 연중무휴·밤 12시까지 운영
소비자들 “밤 늦은 시간 이용·일반 약국보다 저렴”
일부 약사들 “약물 오남용 우려·소규모 약국 타격”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창고형 약국’이 최근 제주에도 문을 열었다. 창고형 약국은 긴 영업 시간과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약물 오남용과 동네약국 위기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오전 제주시 오라3동의 모창고형 약국. 영업 시작 30분 만에 약을 구매하러 온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또 약국이 개점한 지 약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곳곳에는 ‘일부 제품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이곳은 지난 19일 문을 연 도내 최초 창고형 약국으로, 면적은 약 100평(330㎡)에 달한다. 이곳에 근무하는 약사는 총 3명으로 매대를 돌아다니며 상시 상담을 진행한다. 또 영업시간이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약국에 따르면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의 이용객이 방문하고 있다.

다만 일반 약국과 달리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전문의약품은 판매하지 않고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동물용의약품 등을 취급한다. 기본적인 연고부터 두통약, 진통제, 비타민, 어린이영양제, 반려동물 의약품, 단백질보충제 등 다양한 의약품과 건강제품들이 매대에 대량으로 진열돼 직접 비교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김태희(42·전라남도 순천)씨는 “제주에 여행을 왔는데 큰 약국이 문을 열었다고 해서 와왔다”며 “일반 약국보다 더 저렴하고 궁금한 건 바로바로 약사에게 물어볼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박가영(39·제주)씨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약이라도 다양한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어서 좋다”면서도 “아직 초반이라 그런지 약 종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아쉽다”고 전했다.



25일 제주시 오라동의 한 창고형 약국. 손님들이 진열대의 약을 살펴보고 있다. 양유리기자

소비자들은 호평하고 있지만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마트형 약국 운영으로 약물 오남용 우려가 크고 소규모 약국이 경쟁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 소속 A약사는 “약사 수는 적은데 매장은 넓어서 약사와 환자 간 개별 상담이 깊게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 약물 오남용 우려가 크다”며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진 동네약국들이 타격받을 수 있고, 무약촌 지역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창고형 약국 대표약사는 “약물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 시에도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약, 많이 복용하면 안 되는 약 등을 손님들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창고형 약국은)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해 급히 약을 구하기에 용이하고 처방약을 취급하지 않아 소규모 약국들의 피해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양유리기자

성산일출봉 인근 어선 좌초 해경, 승선원 6명 전원 구조

주말 새벽 시간 제주에서 어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새벽 0시23분쯤 성산일출봉 남동쪽 해상에서 어선 A호 (9.77t, 연안복합, 성산)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현장에 구조세력을 파견, 승선원 6명을 모두 구조했다. 당시 선박의 어창 양쪽 측면의 파손된 곳에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오전 6시50분쯤 이초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자동조타로 항해 중 견시 소홀로 좌초됐다”는 A호 선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양유리기자



해안도로에서 즐기는 하이킹 25일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도로에서 라이더들이 바닷바람을 맞으며 하이킹을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14명 사상’ 우도 렌터카 돌진 사고 운전자 구속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우도 렌터카 돌진 사고 운전자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47분쯤 우도 천진항에 도착한 도항선에서 내린 뒤 승합차를 몰며

빠른 속도로 질주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보행자 60대 남성과 70대 남성, 동승자 60대 여성 등 3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상자들은 모두 관광차 우도를 찾았던 관광객들이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도내 / 국내육성품종’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맷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원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포트묘’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귤
유라조생 / 하귤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증사업등록번호 010-4450-4316
제18-제주-2022-20-02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 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2026년 예약 중
보조사업 가능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 장원농장

그랜드
보청기

‘2026년 병오년 고객 감사제’ 24시간 상담 / 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칭역검사

삼총들 혼자 전화 주십서!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인내

NAVER 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겹구이 서광로 225 2층

서사라 사거리
제주시비스터미널

써니트묘목분양

★ 만감류

- 써니트 - 한라봉 2년 - 카란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맷나봉

‘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봉’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써니트 점순을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점, 점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봉’으로 연락을 주시면, 혐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기, 레드한라봉, 홍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닌) 생판신고, 인된 품종이며, 후에 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체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라종묘

증사업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